

브뤼셀 효과와 아프리카 농업 : EU 규제의 글로벌 확산과 도전 과제*



소 시 우

제1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sioo4134@naver.com)



이 하 안

교신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bulgariyann@gmail.com)

국문요약

유럽연합은 브뤼셀 효과를 통해 환경, 사회,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규제를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시키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제는 아프리카 농업 부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EU의 지속 가능성 규제, 특히 산림파괴 방지 규정과 아동 노동 금지 정책 등 EU의 정책이 아프리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응을 조명하였다. 연구 결과, EU 규제는 아프리카 농업의 생산성과 품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무역 구조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높은 준수 비용과 복잡한 행정 절차는 중소 농업 생산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간다의 커피 산업과 코트디부아르, 가나의 코코아 산업은 EU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공급망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생산 방식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기술 및 재정적 한계로 인해 무역 장벽이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EU와 아프리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지원 및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주제어: 브뤼셀 효과, EU 규제, 아프리카 농업, 지속 가능성, 무역 장벽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1292)

I. 들어가며

EU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시장 중 하나로,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를 통해 자국의 규제를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시키고 있다(Bradford 2012). 이 같은 현상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EU의 규제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과 같은 종합적인 정책을 통해 기후 중립 달성과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Bradford 2020).

이와 같은 EU의 규제는 단순히 역내에서 그치지 않고,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으로도 확산되어 무역 구조와 경제 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EU는 아프리카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 아프리카는 주로 광물 연료, 농산물, 원자재 등을 EU로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EU의 엄격한 규제 준수 요건은 아프리카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높은 비용 부담과 같은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NAVEX 2024).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EU와 아프리카 간의 무역 관계를 분석하고, EU 규제가 아프리카 경제와 농업에 미친 영향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EU 규제가 글로벌 규범 형성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브뤼셀 효과가 아프리카와의 무역 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EU 규제의 글로벌 확산을 검토하되, EUDR과 아동 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아프리카 농업의 대응 전략과 경제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둔다. 브뤼셀 효과 이론을 바탕으로, EU 규제가 단순히 역내 경제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검토하며, 이를 아프리카의 경제 구조적 변화 및 지속 가능성 달성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국내에 아프리카와 EU, 아프리카와 유럽 관련 논문과 농업 관련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주로 유럽이나 중국 입장에서 아프리카 농업 기술 보급 체계와 ODA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데 집중해왔다. 황재희, 우수곤, 이성우(2013)의 연구는 에티오피아와 우간다의 농업 기술 보급 체계를 분석하며, 기술 보급 방식의 다양성과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활용한 농업 기술 전수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국가별 농업 기술 보급 체계의 차이를 밝히고, 정부와 농민 간의 협력 구조를 강조하였지만, EU 규제가 아프리카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포함하지 않았다. 김덕수(2019)의 연구는 프랑스의 아프리카 농업 ODA 정책을 평가하며, 식량 안보와 농업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프랑스의 정책이 아프리카 농업 발전에 미친 영향을 다루었지만, EU의 직접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아프리카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및 제도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 또한 김덕수(2020)의 연구는 튀니지 가프사의 전통 오아시스를 사례로 들어, 전통적인 농업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유산 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하였지만, EU의 농업 규제가 아프리카 농업 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한편, 손승해 외(2024)의 연구는 아프리카 소농민을 위한 ICT 기반 병해충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며, 기술 혁신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EU 규제가 아프리카 농업의 기술 도입과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본 연구와 일부 유사성을 가질 수 있지만, 본 연구는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EU의 규제가 아프리카 농업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 대응을 촉진하는 방식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강유덕(2017)은 EU와 아프리카 간 경제동반자협정(EPA)의 추진 목적과 그 이면의 정치 및 경제적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EPA가 농업 규제 측면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이었다. 또한, 심성은과 김성수(2017)는 EU의 독자적인 제재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및 정치 환경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지만, 이는 본 연구가 집중하는 농업 부문의 규제 확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이 ODA, 기술 혁신, 농업 전통, 또는 무역 정책의 맥락에서 아프리카 농업을 분석한 반면, 본 연구는 EU 규제가 아프리카 농업 정책 및 구조에 미치는 포괄적인 영향을 검토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농업 규제의 표준화가 무역과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는 점에서 독창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가 다루지 않은 규제의 경제적 부담과 무역 장벽의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총 4장으로 구성된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기반인 브뤼셀 효과와 글로벌 규제 확산 메커니즘을 다룬다. Anu Bradford(2020)의 이론을 중심으로, EU 규제가 직접적 확산과 간접적 확산의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설명한다. 또한, EU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UN의 SDGs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며, 환경, 사회, ESG로 구분된 EU 규제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다. 3장에서는 EU와 아프리카 간의 무역 관계를 역사적 배경과 현재의 경제적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아프리카가 EU의 주요 교역 파트너로 자리 잡게 된 배경과 이를 둘러싼 경제동반자협정의 역할을 살펴보겠다. 또한, EU 규제가 아프리카 경제 구조에 미친 영향을 무역 규모, 품목 구조, 규제 준수 비용 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브뤼셀 효과가 아프리카와의 무역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요 발견을 제시하겠다.

II. 이론적 배경

1. 브뤼셀 효과와 글로벌 규제 확산 메커니즘

브뤼셀 효과는 EU가 제정한 규제가 역내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Bradford 2012). Anu Bradford에 의해 제시된 이 개념은 EU의 시장 규모, 제도적 역량, 규제 엄격성이 결합하여 글로벌 규제 우위를 형성하는 과정을 강조한다(Bradford 2020). 특히, EU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시장 중 하나로, 약 4억 5천만 명의 소비자를 보유하고 있어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이다. 이로 인해 EU의 규제는 역외 지역에서도 자발적 혹은 필수적으로 채택되며 국제적인 영향을 미친다(Bradford 2015).

〈표 1〉 EU 규제의 주요 경로

구분	내용
직접적확산 (Direct influ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역내 시장 접근을 위해서는 EU 규제 준수가 필수적이며, 무역 관계가 깊은 국가들은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게 됨 • 대표적 사례로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이 있으며, 유럽 소비자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글로벌 기업은 이를 준수해야 함 • 규정 위반 시 연간 매출의 최대 4% 또는 2천만 유로 중 더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됨 • 이러한 강력한 제재는 기업들의 규제 준수를 강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
간접적확산 (indirect influ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적 기업들은 생산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글로벌 통합 표준을 선호함 • EU 규제에 맞춘 생산 프로세스와 제품 설계를 다른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 • 이는 소위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로 불리며, EU의 규제가 사실상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는 현상을 의미 함 • 특히 환경, 소비자 보호, 데이터 보안 등의 분야에서 EU의 높은 규제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음
추가적인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의 규제는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제3국의 기업들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을 촉진 • 글로벌 규제 표준의 상향 평준화에 기여하며, 소비자 보호와 환경 보호 등의 가치를 전파

자료: Bradford(2012, 23-30)에서 저자 정리

또한 EU 규제는 국제적으로 두 가지 주요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 <표 1>은 이러한 경로의 특징을 요약하여 보여준다.

첫 번째로, 직접적 확산은 EU와 무역 관계가 깊은 국가들이 EU 규제를 자발적으로 도입하거나 강제로 채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EU 단일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EU의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장에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큰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이하얀 2024). 대표적인 사례로는 EU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있다. 이 규정은 유럽 소비자 데이터를 취급하는 모든 글로벌 기업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Neumetric 2024). 이러한 규제는 기업들로 하여금 EU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시스템과 절차를 재정비하도록 압력을 가하며, 결과적으로 규제가 역외 지역에도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두 번째로, 간접적 확산은 다국적 기업들이 EU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생산 과정, 제품 설계, 공급망 관리 등을 변경함으로써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기업들이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하나의 통합된 표준을 선호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특정 제품에 대해 EU가 요구하는 높은 환경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전체가 이러한 기준을 채택하게 되며, 이는 EU 역외 시장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낳게 된다(Vistra 2023).

따라서, EU의 규제는 직접적 제재나 요구를 통해 확산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략적 선택과 효율성 추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간접적으로 확산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확산 메커니즘은 EU 규제가 단순히 역내 시장을 넘어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 잡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 브뤼셀 효과의 확산은 크게 세 가지 메커니즘으로 설명된다. 첫째, 시장 접근성 메커니즘이다. EU는 세계 최대 단일 시장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이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EU의 엄격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EU는 주요 수출 시장으로, 경제적 유인을 기반으로 EU 규제를 수용하는 사례가 많다. 둘째, 정책 학습 메커니즘이다. EU 규제는 과학적 근거와 이해관계자 협의를 바탕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자국 규제 체계를 설계할 때 EU 규제를 모델로 삼는다(Young 2015). 이는 규제 설계 비용을 절감하고, 국제적 호환성을 높이며,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셋째, 경쟁 우위 메커니즘이다. EU의 높은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나 국가는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게 되며, 이는 특히 농산물과 같은 원자재 중심의 산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DD Customs

Law 2023).

브뤼셀 효과가 가능했던 주요 배경에는 EU의 엄격한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노동권 증진 규제가 있다. 이러한 규제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공하며, 단순한 무역 요건을 넘어 국제적인 규범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Taylor 2024). 특히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EU 규제의 영향력이 더욱 두드러지며, 이는 지속 가능성과 품질 개선, 노동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높은 준수 비용과 복잡한 절차라는 도전 과제를 남긴다(Welthungerhilfe 2023).

〈표 2〉 브뤼셀 효과의 확산 메커니즘과 주요 배경

구분	내용
① 시장 접근성 메커니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는 세계 최대 단일 시장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이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EU 규제를 준수해야 함.•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EU는 주요 수출 시장이며, 경제적 유인을 기반으로 EU 규제를 수용하는 사례가 많음.
② 정책 학습 메커니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규제는 과학적 근거와 이해관계자 협의를 바탕으로 설계되었으며, 개발도상국들이 자국 규제 체계를 설계할 때 모델로 삼음.• 규제 설계 비용 절감, 국제적 호환성 증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제공.
③ 경쟁 우위 메커니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의 높은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나 국가는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짐.• 특히 농산물 및 원자재 중심 산업에서 EU 규제 준수 여부가 무역과 시장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침.

자료: Bradford(2012, 23-30)에서 저자 정리

2. EU 규제 프레임워크와 UN의 SDGs

EU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UN의 SDGs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포괄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EU 역내뿐만 아니라 EU와 긴밀한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가치사슬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U는 유럽 그린 딜을 통해 유럽이 2050년까지 기후 중립적인 첫 번째 대륙이 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교통, 농업,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3).

EU 규제의 핵심은 환경, 사회, ESG 세 가지 주요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UN의 SDG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SDG 12(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SDG 13(기후 행동), SDG 15(육상 생태계 보호) 등의 목표를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표 3〉 EU 규제 프레임워크의 주요 영역 및 특징과 SDGs의 연계성

영역	주요규제	목표 및 효과	연계 SDGs
환경	- EUDR - CBAM	- 산림 파괴 감소 및 지속 가능한 농업 촉진 - 글로벌 공급망의 탈탄소화	- SDG 13(기후 행동) - SDG 15(육상 생태계 보호)
사회	- 공정무역 인증 - 아동노동 금지 - CSDDD	- 윤리적 생산 방식 보장 - 노동권 및 인권 보호 -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	- SDG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 SDG 12(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거버넌스	- 공급망 실사 의무화 - 투명성 강화	- 지속 가능한 경영 촉진 - 개발도상국의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 SDG 9(산업, 혁신 및 인프라) - SDG 17(파트너십 강화)

자료: European Green Deal, EUDR, CBAM, CSDDD 자료에서 저자 정리

환경 영역에서는 EUDR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같은 제도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EUDR은 산림파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산림파괴 문제가 심각한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2). CBAM은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글로벌 공급망의 탈탄소화를 촉진한다(ERM 2023).

사회 영역에서는 공정무역 인증과 아동 노동 금지 같은 노동권 보호가 중심이 된다. EU는 국제 노동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며, 공급망 전반에서 윤리적 생산 방식을 요구한다. 특히,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은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인권과 환경 보호를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글로벌 인권 증진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한다(World Economic Forum 2023).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공급망 실사 의무화와 투명성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촉진하며, 개발도상국들에게 다양한 기술 지원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EU는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규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솔루션을 제공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표 3>은 EU 규제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을 세 가지 영역으로 요약하고 SDGs와 연계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EU 규제 프레임워크는 단순히 EU 내부 규제를 넘어 글로벌 규범 형성의 역할을 하며,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기회와 함께 높은 준수 비용이라는 도전 과제를 동시에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환경과 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며, 국제 협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EU-아프리카 무역 관계의 현황과 특징

EU와 아프리카의 무역 관계는 역사적 배경과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바탕으로 발전해왔다. 과거 식민지 시대의 유산에서 출발한 이 관계는 현재 EPA와 같은 제도를 통해 더욱 협력적인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4a). EU는 아프리카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아프리카 수출의 약 90%가 EU 시장으로 유입되며, 관세와 할당량 없이 이루어지는 무역 관계가 특징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 관계는 단순한 수출입에 그치지 않고, EU 규제가 아프리카의 경제 구조와 무역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European Commission 2024b).

EU와 아프리카 간 무역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무역 규모의 비대칭성이다. 2023년 기준으로 EU는 약 1,872억 유로 상당의 아프리카산 상품을 수입하며 아프리카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 반면, 아프리카는 EU 전체 수입의 약 7%를 차지하는데 그쳐, 무역 규모에서의 비대칭성이 뚜렷하다(Live EO 2024). 또한, 품목 구조의 편중성도 눈에 띄는데, 아프리카의 대EU 수출은 주로 광물 연료, 농산물, 원자재와 같은 저부가가치 품목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입은 주로 공산품과 기술 집약적인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아프리카 경제의 다각화 부족과 취약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EU 규제가 이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EU 규제는 아프리카에 긍정적인 변화와 도전 과제를 동시에 가져왔다. 긍정적인 변화로는 지속 가능성과 품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과 지역 경제 다각화의 촉진이 있다. 예를 들어, 우간다의 커피 산업은 EU의 EUDR을 준수하기

위해 공급망 추적 시스템과 인증 절차를 강화하여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반면, 도전 과제로는 높은 규제 준수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있으며, 이는 특히 아프리카의 소규모 생산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Africa.Bayern 2024).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Team Europe Initiative는 기술 지원, 인프라 구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EU 규제 기준을 충족하도록 돕고 있다¹⁾. 이를 통해 EU와 아프리카의 협력 관계는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국제 무역 모델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 즉, EU와 아프리카의 무역 관계는 상호 의존적이며, EU 규제가 아프리카 경제의 변화를 촉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는 단순한 무역의 범위를 넘어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무역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 경제의 구조적 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Ⅲ. 아프리카 농업과 규제 변화 사례 분석

1. 아프리카 농업에 끼친 긍정적 효과와 한계: 지속 가능성과 제품 품질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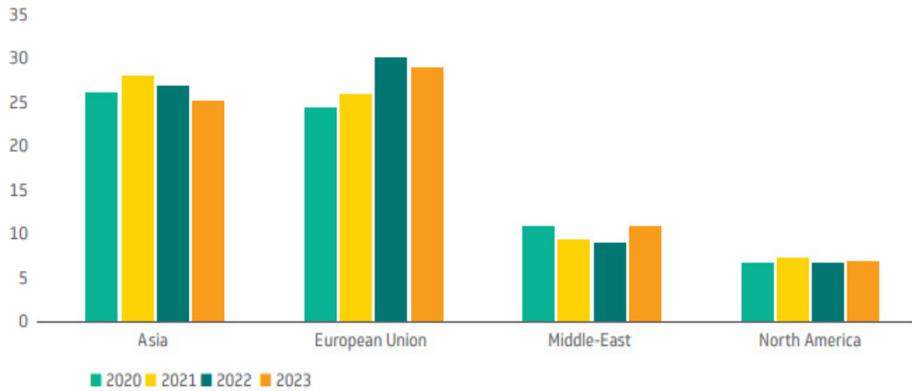
EU는 아프리카 수출에 있어 가장 개방적인 시장으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는 EU 시장을 관세와 할당량(quota)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이처럼, EU는 다른 무역 파트너들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프리카와 중국과의 교역 증가에도 불구하고, EU는 아프리카의 최대 수출 시장이자 주요 고객으로 자리 잡고 있다. <표 4>의 아프리카의 수출 지역 연도별 비율 그래프에 따르면, EU로의 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1) Team Europe Initiative(TEI)는 EU, EU 회원국, 유럽투자은행(EIB)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개발협력 프로그램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녹색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기술 지원, 인프라 구축 자금 지원, 현지 생산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으며, 특히 EU 규제 기준 충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무역, 친환경 농업, 공급망 투명성 개선 등을 돕고 있으며, EU와 아프리카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 "EU-Africa: Global Gateway Investment Package" - European Commission, 2024, https://international-partnerships.ec.europa.eu/policies/global-gateway/initiatives-sub-saharan-africa/eu-africa-global-gateway-investment-package_en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2023년에는 약 1,872억 유로 상당의 상품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해 EU의 총 상품 수입에서 아프리카의 점유율은 6.7%에 불과했는데, (Statista 2024a) 주요 수입 상품으로는 광물 연료와 운할유가 19.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식품, 음료 및 담배가 11.7%로 그 뒤를 이었다. (Statista 2024b).

〈표 4〉 아프리카의 수출 지역 연도별 비율 (%)



자료: Afreximbank(2024, 58)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https://media.afreximbank.com/afrexim/African-Trade-Report_2024.pdf (검색일: 2024. 12. 20)

EU는 현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4개국과 5개의 EPA를,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4개의 연합 협정(Association Agreements, AA)을 체결하고 있으며, 34개 아프리카 국가는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 Scheme of Preferences, GSP) 및 무기 이외 모든 상품(Everything But Arms, EBA)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 수출의 90% 이상이 약 4억 5천만 명의 EU 소비자 시장에 관세 없이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무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품이 EU의 엄격한 품질 및 지속 가능성 기준을 충족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EU는 무역 지원(Aid for Trade)을 통해 아프리카 생산자들이 시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인프라 개발, 지역 가치사슬 구축 등을 재정적 및 기술적으로 지원한다(European Commission 2019). 특히 2022년 발표된 글로벌 게이트웨이 아프리카 투자 패키지는 6,300만 유로를 추가 투입해 아프리카대륙자유 무역지대(AfCFTA) 운영 지원과 교역 인프라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4d). 인프라 지원 메커니즘(ISM)은 교역 촉진을 위한 물류 회랑 건설과 지역 가치사슬 연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African Union 2023).

환경 문제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EU 시장에서는 유기농 인증 제품 수요가 2017년 342억 유로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International Trade Centre 2019), 2024년 북유럽 유기농 식품 박람회 참가자의 52%가 EU 유기농 인증 제품을 최우선으로 조회하는 등 소비자 선호가 두드러지고 있다(Nordic Trade Expo 2024). EU 유기농 규정(2018/848)은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정무역(Fairtrade) 인증 제품 시장도 2010년 43억 6천만 유로에서 2016년 78억 8천만 유로로 80% 성장하였다. EU는 2024년까지 비EU 국가를 대상으로 유기농 인증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무역 표준과 연계한 농업생태계 접근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보호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Fairtrade 2022).

이러한 조건들은 아프리카 상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프리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몇 가지 사례가 있다.

첫 번째로, EUDR은 삼림 벌채가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아프리카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이는 산림파괴나 산림 훼손된 땅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EUDR은 커피, 팜유, 콩, 코코아, 목재, 고무와 같은 원자재와 파생 제품들(가죽, 가구, 초콜릿 등)을 취급하는 기업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커피는 아프리카에서 중요한 수출 품목 중 하나이며, 특히 우간다에서는 유럽 시장으로의 전체 수출에서 약 60%를 차지한다. 따라서,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간다는 EUDR 준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적용하고 있다. EUDR은 커피 거래자들이 복잡한 공급망 속에서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압박을 가한다. 이에 커피 수출업자들은 커피 원두의 출처를 정확히 추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우간다 정부는 우간다 커피 개발청(Uganda Coffee Development Authority, UCDA)에 139억 실링(약 380만 달러)을 지급하여 커피 제품이 산림 훼손과 무관함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을 수행하고 있으며, 커피 농부 등록을 위해 350억 실링(약 950만 달러)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모든 커피 농장에 고유 식별자와 지리적 위치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현재 우간다는 EUDR 마감일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영역적 접근 방식(Territorial Approach, TA)을 시행하고 있는데, TA는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와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커피 생산으로 인해 삼림 벌채가 발생한 지역을 파악하는 단기 전략이다.

EU와 UN 또한, 우간다에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자 지원 시스템 및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적 솔루션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21년 이후 우간다에서 주요 산림 손실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긍정적인 추세가 관찰되고 있다. 이처럼, EUDR은 우간다 정부가 제품의 추적 가능성과 투명성을 향상하도록 압박함으로써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브랜드 신뢰 제고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관행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표 5〉 우간다 내 주요 산림 손실 면적 (2001년 대비 kha)



자료: Global Forest Watch,

<https://www.globalforestwatch.org/dashboards/country/UGA/> (검색일: 2025. 1. 9)

두 번째로, 식품에 대한 EU의 엄격한 기준들은 아프리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더 높은 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아프리카 농업 무역이 세계 시장 가격 변동에 취약한 커피, 차, 코코아와 같은 비가공 저가 농산물의 수출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중요한 변화이다. 섬의 약 25%가 사탕수수로 이루어진 모리셔스에서 EU는 전체 설탕 수출량의 약 68.3%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 시장이다. 수입하는 설탕에 대해 식품 품질 및 안전 보장, 추적 가능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등을 요구하는 EU로 인해 모리셔스는 생산 공정을 개선해야 했고 이는 설탕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데 기여했다. 모리셔스는 최소한의 가공처리와 인공 향료 및 착색제 등의 첨가물이 없는 특수 설탕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데 집중했으며, 공정무역과 적은 탄소 발자국의 인증은 제품의 시장 가치성과 가격을 향상시켰다.

마지막으로, 전체 수출의 약 90%가 독일로 향하는 세이셸 역시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커피 생산 및 운영 표준을 개선하여 고품질의 유기농 커피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화장품 및 의약품 분야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때, 이러한 제품들은 EPA를 통한 관세와 할당량 면제로 안정적인 시장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현지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며,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

이처럼, EU 고객과의 장기적 파트너십을 통한 인프라 및 기술 개발, 제품 품질 개선 등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제를 다각화하여 원자재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고, 지역 산업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EU의 엄격한 규제들은 EU로의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원료 생산 국가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도전 과제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EU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높은 비용 부담에 직면해 있다. 특히, 소비자들이 기준 이행으로 인한 제품 가격 상승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이 농부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게다가 EU는 한편으로는 다양한 조약을 통해 아프리카 생산자들에게 시장을 개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프리카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EU는 과도하게 엄격한 최대 잔류 허용치(MRLs)²⁾ 규정을 적용하여 식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특히, 견과류와 건조 과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독성 물질인 아플라톡신에 대하여 UN의 권고보다 매우 낮은 잔류 허용치를 설정하여 아프리카 원예 제품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세계은행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는 데 따르는 비용은 아프리카에 연간 2억 2천만 달러에 달한다.

또한, 아프리카 생산국들의 공급망은 농부, 협동조합, 수출업자, 가공업자 등 여러 주체들이 얽혀 있어 추적 가능성이 쉽지 않다. 그리고 이들은 규제 준수를 위한 충분한 자본이나 기술이 없기 때문에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기 쉽다.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는 주요 수출 제품이자 외화의 주요 공급원인 커피와 관련하여 브뤼셀이 부과한 완전한 추적 가능성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로 인해 2025년에 커피 수출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에티오피아 커피의 최대 구매자 중 하나인 독일 기업 달마이어(Dallmayr)는 에티오피아가 EU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지리적 조사나 디지털

2) 농산물, 식품 중에 잔류가 허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최대농도(mg/kg 또는 mg/L)를 말한다.

추적 시스템 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커피 수입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에티오피아 정부와 수출업체는 EUDR를 준수하는 데 최대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 종사자 중 다수가 소규모 농민들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비공식적이고 불투명한 공급망이 주요 도전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커피가 국가 경제의 원동력이자 생계의 주요 원천인 에티오피아는 EU 시장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 아프리카 농업에 끼친 긍정적 효과와 한계: 노동 환경 개선

윤리적 생산 방식을 요구하는 EU의 엄격한 조건들 또한 아동 노동 및 저임금 문제가 현저한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는 약 9,200만 명의 아동(5-17세)이 아동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아동의 약 21.6%에 해당하여, 전 세계에서 아동 노동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ILO 2021). 이 중 약 81%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가족 생계형 농업과 소규모 자영농에 종사하며, 상업적 플랜테이션, 어획 어업, 양식업 및 어류 가공업에서도 일하고 있다. 이처럼, 아프리카에서 농업이 아동 노동의 시작점처럼 작용하고 있는 이유는 농업 부문의 상당 부분이 비공식적이고, 저숙련 및 저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아동들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데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프리카에서는 다수의 아동이 건강, 안전, 도덕적 발달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EU는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을 종식시키는 SDG 8.7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 무역 정책에서 아동 노동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EU 자유 무역 협정은 무역 파트너가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과 최소 노동 연령에 대한 ILO 협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여 강제 노동이나 아동 노동과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와 관련된 제품의 수입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2022년 9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아동 노동을 포함한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EU 시장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강제 노동 규제(Forced Labour Regulation)를 발표했다. 이 규제는 기업 규모나 제품 수에 관계없이 EU로 수출입을 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유럽 시장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아프리카 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제품이 공급망 내 어느 단계에서든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것으로 판정되면, 해당 제품은 수출입이 금지되며, 이미 시장에 유통된 제품은 리콜 혹은 폐기

처리된다. 이에 불응할 경우, 기업은 벌금 및 기타 법적제재를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4년 7월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CSDDD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EU 역내, 역외 기업들이 공급망을 철저히 평가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공정한 노동 조건을 촉진하는 책임 있는 운영을 보장하도록 요구한다(HWP 2024). 이 규제는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뿐 아니라 결사의 자유, 동등한 임금, 고용 차별 등을 포함하는데, 이를 준수하는 기업은 EU 시장에서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무역 절차가 복잡해지고 오랜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Skadden 2024).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는 파트너 국가들이 규제 및 법적 프레임워크를 더 잘 설계하고 개선하며, 교육에서 노동 시장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등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Ecobio 2024). 특히, EU는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코코아와 면화와 같은 특정 공급망에 대한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다. EU는 세계에서 가장 큰 카카오 수입국으로, 2020년, 유럽 그린 딜과 아동 노동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바탕으로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EU 지속 가능한 카카오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글로벌 코코아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약 156만 명의 아동이 코코아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Labor 2022). EU는 2021년에 코트디부아르, 가나, 카메룬을 위한 2,500만 유로 규모의 기술 지원 및 예산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으며, 2022년에 구체적인 시간 기반 실행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로드맵을 승인하여 면밀한 모니터링을 계획했다(European Commission 2022).

또한, 코트디부아르와 가나가 2019년 6월에 제안한 세계 시장에서의 코코아 최소 가격과 생활 소득 차액(Living Income Differential) 정책을 기반으로, 지역 농민에게 적절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Eba 2023). 이처럼, 지속 가능한 코코아 이니셔티브는 국가적, 지역적, 글로벌 수준의 기타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아동 노동, 농민 소득, 산림파괴, 공정 거래 및 투자 등 지속 가능성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EU Sustainable Cocoa Initiative 2023). 코트디부아르와 가나 정부 역시 EU 규제에 맞춰 아동 노동에 관한 ILO 협약을 비준하고, 코코아 추적 가능성 시스템을 개발하여 아동 노동 관련 데이터 수집을 강화하는 등 아동 노동 근절을 위한 다양한 국가 행동 계획을 수립했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아동 노동 모니터링 시스템(Child Labour Monitoring System, CLMS)을 통해 아동

노동 사례를 성공적으로 식별하고 해결했다고 보고하여 진전을 보이기도 했다(European Forest Institute 2024).

하지만, 이러한 적극적인 규제와 지원에도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의 카카오 생산 지역에서의 아동 노동 비율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며, 이니셔티브가 시행된 일부 지역과 가구에서만 아동 노동 감소가 관찰되었다. 더욱이, 직접적인 감소 노력이 적용된 지역은 두 국가의 카카오 생산 지역의 10-20%에 불과했고, 기존 아동 노동 인식 프로그램의 성과가 유지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European Commission 2021). 특히, 2019년부터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빈곤과 아동 노동 문제가 더욱 악화되어 EU 규정 준수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UNICEF 2022). 정부는 아동 노동 모니터링 시스템 및 국가 추적 가능성 시스템의 견고성, 정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니셔티브와 인식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 지역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아동이 가족 농장이나 가족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은 아동이 가족을 지원하고 가업을 배우는 비위험적인 방식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Nestlé 2022). 실제로, 아프리카 연합(AU)은 아동의 건강, 학업, 개인 발달을 방해하는 노동을 금지하지만, 모든 아동은 가족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닌다고, 가족의 복지에 기여하는 '건전한 아동 노동'을 인정한다(African Child Policy Forum 2023).

때문에, EU 정책 입안자들은 아동 노동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프리카의 현실을 이해하고, 아동 노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무관용' 접근보다 유해한 아동 노동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정한 가격과 근로자 대우를 보장하는 공정무역은 아프리카에서 특히 코코아와 커피 제품에 적용되어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노동 관행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코트디부아르의 공정무역 코코아 농부들의 소득은 2018년 연구에 비해 85% 증가했으며, 상당수의 농가가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났다. <표 6>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빈곤선 이상에서 사는 농가의 비율이 2018년 23%에서 2020년 43%로 약 20%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공정무역 코코아 농가의 더 큰 비율(15%, 2018년은 7%)이 생계 소득을 올렸던 것으로 나타나, 공정무역을 통한 농산물의 최저가격과 최저임금 보장이 농부들에게 안정적이고 공정한 수익을 제공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코트디부아르의 농가 가구 소득 분포 비교(단위: %)³⁾

지표	2020년	2018년
0 USD 미만/가구	2.2	5.5
0 ~ 극단적 빈곤선	35.7	52.3
극단적 빈곤선 ~ 빈곤선	18.4	19.4
빈곤선 ~ 생활소득	28.3	16.2
생활소득 이상	15.4	6.6

자료: Fairtrade International 자료 저자 작성

또한,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농민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코코아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이는 코코아 가격의 하락이 농부들의 수입을 빈곤선 아래로 밀어내고 아동 노동의 악순환을 지속시키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에, CSDDD는 기업의 구매 관행이 생활 소득, 아동 노동, 강제 노동 등과 관련된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압박함으로써, 농산물의 적정 가격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거래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가나에서는 농민 연금 시스템을, 코트디부아르에서는 농민을 위한 건강 보험 개발 등의 이니셔티브가 진행되고 있고, 생활용수 공급과 같은 사회적 투자를 통해 대규모 노동자의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World Bank Group 2023). 더불어 코트디부아르와 가나는 면화가 주요 생산 품목인 부르키나파소와 말리와 협력하여 아동 노동 근절 및 농가 복지 개선을 위한 협정을 강화하는 등 아프리카 국가 간의 공동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3) Fairtrade International, "Cocoa farmer income: The household income of Fairtrade cocoa farmers in Côte d'Ivoire and strategies for improvement", <https://www.fairtrade.net/en/get-involved/library/cocoa-farmer-income-the-household-income-of-fairtrade-cocoa-far.html>(검색일: 2025. 1. 11.).

참고: 극단적 빈곤선(Extreme Poverty Line)은 세계은행이 정의한 국제 극빈선으로, 1인당 하루 \$2.15 미만으로 생활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약 6억 4천 8백만 명이 극단적 빈곤 상태에 있다. 빈곤선(Poverty Line)은 한 국가에서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 수준을 의미하며, 세계은행은 이를 기준으로 세 가지 국제 빈곤선을 설정하고 있다. 극단적 빈곤선은 하루 \$2.15, 저중소득국 빈곤선은 하루 \$3.65, 고중소득국 빈곤선은 하루 \$6.85로 정의된다. 생활소득(Living Income)은 "특정 지역에서 가구의 모든 구성원이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리는 데 필요한 연간 순소득"으로 정의되며, 식량, 물, 주거, 교육, 의료, 교통, 의복, 기타 필수품을 포함하고 예기치 않은 사건에 대비한 여유 자금을 고려한다.

이처럼, 아프리카는 EU와의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EU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EU와 국제기구로부터 많은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비록, EU의 엄격한 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아프리카는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인 생산 방식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점차 발전하고 있다.

즉, EU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제품 품질 향상, 인프라 개발, 노동 환경 개선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프리카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물론, 여전히 여러 한계점이 있지만, EU의 규제가 글로벌 수준으로 확산되고, 국제 무역 기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오늘날, EPA와 같은 무역 협정은 아프리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역을 통해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협력 도구임이 확실하다.

IV. 나가며

앞서 살펴본 것처럼, EU와 아프리카 간의 무역 관계는 브뤼셀 효과를 통해 EU 규제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상호 의존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EU는 EPA와 무관세 정책을 통해 아프리카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가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EU는 단순한 시장 제공자를 넘어, 환경, 사회, ESG 차원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무역 관계에 반영하여 아프리카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EU의 엄격한 규제는 아프리카 농업과 산업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우간다의 커피 산업은 EUDR 준수를 위해 공급망 투명성을 강화하고 인증 절차를 개선하여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의 코코아 산업 역시 지속 가능한 코코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동 노동 문제를 개선하고,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사례는 EU 규제가 아프리카에서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의 도입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을 어떻게 촉진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EU 규제는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규제 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는 아프리카의 소규모 생산자들에게 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술적, 재정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규제 준수가 어렵고, 이는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의 커피 산업은 추적 가능성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시스템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국제 시장 접근성이 제한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EU 규제가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U는 이러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환경 보호와 노동권 보장, 아동 노동 근절 등 국제 규범에 대한 아프리카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EU의 지원은 큰 의미를 가진다.

EU와 아프리카의 무역 관계는 단순히 경제적 상호 작용을 넘어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협력 모델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U 규제는 아프리카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을 통해 원자재 의존 경제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동시에 아프리카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규제 준수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나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선, 주로 사례 연구와 문헌 분석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EU 규제가 아프리카 농업 생산성과 수출량에 미친 영향을 보다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규제 도입 전후의 수출 데이터, 가격 변동, 기업 수익률 변화 등을 분석하여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정책적 함의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업 부문을 중심으로 EU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제조업, 광업, 기술 산업 등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EU의 지속 가능성 정책이 아프리카 전체 경제 구조 변화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더불어, 아프리카는 국가별 경제, 정치 및 사회적 상황이 크게 다르므로 EU 규제의 영향이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후속 연구에서는 국가별 대응 전략과 규제 준수 방식의 차이를 분석하여 보다 세부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EU 규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아프리카 내 협력이 필요하며, 공동 무역 정책, 인증 시스템 구축, 지역 가치사슬 강화 등의 협력 모델이 규제 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유덕. 2017. EU의 대(對)아프리카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 목적에 대한 비판적 고찰. EU연구 (47), 3-40.
- 김덕수. 2019. 프랑스의 아프리카 농업 ODA정책과 시사점. 프랑스 문화 연구 43(1), 223-251.
- 김덕수. 2020. 북아프리카 세계중요농업유산 사례연구 - 튀니지 가프사(Gafsa) 전통 오아시스 세계중요농업유산을 중심으로. 지중해지역연구 22(3), 1-28.
- 노효선. 2021. 우간다의 도시-농촌 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ICT 적정기술. 적정기술학회지(Journal of Appropriate Technology) 7(1), 33-40.
- 박진환, 김상순. 2023. 해외 농업스타트업 성공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C사'의 제2창업기(바나나 팜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8(3), 61-79.
- 손승해, 조경대, 서희, 유수정, 이원섭. 2024. ICT 기반 아프리카 소농민의 병해충 문제해결 서비스 설계.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5(3), 797-806.
- 심성은, 김성수. 2017. EU의 독자제재에 관한 고찰 - 짐바브웨, 기니, 부룬디, 튀니지, 이집트 사례연구. 통합유럽연구 8(2), 131-170.
- 이하얀. 2024. 브뤼셀 효과와 플라스틱 규제의 글로벌 확산 :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규제 전파 경로 분석. 한국과 세계 6(6), 987-992.
- 정성숙. 2024. 유럽연합의 초국가성과 그로 인한 법적인 결과. 법학연구 24(3), 219-238.
- 황재희, 우수곤, 이성우. 2013. 아프리카의 농업기술보급체계와 농업기술협력 전략 - 에티오피아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20(4), 1045-1078.
- Afreximbank. 2024. African trade report 2024.
- Bradford, A. 2012. The Brussels Effect: How the European Union rules the world.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107(1), 1-68.
- Bradford, A. 2015. Exporting standards: The externalization of the EU's regulatory power via markets.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42, 158-173.
- Bradford, A. 2020. The Brussels Effect: How the European Union rules the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 Eba, B. J. C. 2023. Côte d'Ivoire-Ghana cocoa cartel (COPEC): Implications for price and income volatility. Paper presented at the 14th Multi-Year Expert Meeting on Commodities and Development, Geneva, Switzerlan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 European Commission. 2019. EU Aid for Trade progress report 2019: Review of progres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updated EU Aid for Trade Strategy of 2017.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European Commission. 2021. Ending child labour and promoting sustainable cocoa production in Côte d'Ivoire and Ghana.
- European Commission. 2024. The European Union and Africa: Partners in trade.
- European Commission. 2024.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between the EU and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countries.
- European Commission. 2024. EU-Africa: Global Gateway Investment Package.
- European Commission. 2024. EU Sustainable Cocoa Initiative.
- European Forest Institute. 2024. Preparedness check of Côte d'Ivoire for the EU deforestation regulation.
- ILO. 2021. Child labour statistical profile: Africa.
- International Trade Centre. 2019. The European Union market for sustainable products: The retail perspective on sourcing policies and consumer demand.
- Mateos, G. G., Corrales, N. L., Talegón, G., & Aguirre, L. 2024. Pig meat production in the European Union-27: Current status, challenges, and future trends. *Animal Bioscience* 37(4), 755-774.
- Young, A. R. 2015. The European Union as a global regulator? Context and comparison.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22(9), 1233-1252.
- World Bank Group. 2019. Côte d'Ivoire receives \$150 million to improve water supply and sanitation services in 12 secondary cities.
- 한겨레 출처: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120868.html> (검색일:

2025. 01.11.).

- Afreximbank, 2024. African trade report 2024. 출처: https://media.afreximbank.com/afrexim/African-Trade-Report_2024.pdf (검색일: 2025.01.11.).
- African Child Policy Forum, 2019. The child law resources 2019. 출처: <https://clr.africanchildforum.org/> (검색일: 2025.01.11.).
- African Union, 2024. Trade & markets. 출처: <https://www.ism-africa.eu/trade-and-markets/> (검색일: 2025.01.11.).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 European Commission, 2024. 출처: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_en (검색일: 2025.01.11.).
- Co-funded by the European Union, 2024. EU Sustainable Cocoa Initiative (SCI). 출처: <https://zerodeforestationhub.eu/projects/sci/> (검색일: 2025.01.11.).
- Ecobio, 2024. CSDDD timeline explained. 출처: <https://ecobiomanager.com/csddd-timeline-explained/> (검색일: 2025.01.11.).
- European Commission, 2024. The European Union and Africa: Partners in Trade. 출처: <https://www.tralac.org/documents/resources/external-relations/eu/epas/4918-the-european-union-and-africa-partners-in-trade-factsheet/file.html> (검색일: 2025.01.11.).
- European Commission, 2024.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between the EU and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countries. 출처: <https://www.tralac.org/documents/resources/external-relations/eu/epas/4917-eu-acp-economic-partnership-agreements-factsheet/file.html> (검색일: 2025.01.11.).
- European Commission, 2024. EU-Africa: Global Gateway Investment Package. 출처: https://international-partnerships.ec.europa.eu/policies/global-gateway/initiatives-sub-saharan-africa/eu-africa-global-gateway-investment-package_en (검색일: 2025.01.11.).
- European Commission, 2024. EU Sustainable Cocoa Initiative. 출처: https://knowledge4policy.ec.europa.eu/global-food-nutrition-security/topic/sustainable-food-systems/eu-sustainable-cocoa-initiative_en (검색일: 2025.01.11.).
- Fairtrade, 2024. Fairtrade works for a better climate and environment. 출처: <https://www.fairtrade.net/> (검색일: 2025.01.11.).

//www.fairtrade.net/en/why-fairtrade/why-we-do-it/climate-and-the-environment.html (검색일: 2025.01.11.).

- Global Forest Watch. 2024. Uganda deforestation rates & statistics. 출처: <https://www.globalforestwatch.org/dashboards/country/UGA/> (검색일: 2025.01.11.).
- HFW. 2024.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What you need to know. 출처: <https://www.hfw.com/insights/the-corporate-sustainability-due-diligence-directive-csddd-what-you-need-to-know/> (검색일: 2025.01.11.).
- ILO. 2021. Child labour statistical profile: Africa. 출처: https://www.ilo.org/sites/default/files/2024-11/Statistical_Profile_01_Africa_ENGLISH_FINAL_20220114_NEW.pdf (검색일: 2025.01.11.).
- Neumatic. 2024. Understanding the consequences: Penalties for violating GDPR. 출처: <https://www.neumatic.com/penalties-for-violating-gdpr/> (검색일: 2025.01.11.).
- Nordic Trade Expo. 2024. New data reveals surging demand for EU Organic and Ethical Certifications at Nordic Organic Food Fair & Natural Beauty & Health Show. 출처: <https://www.nordicorganicexpo.com/news/new-data-reveals-surging-demand-for-eu-organic-and-ethical-certifications-at-nordic-organic-food-fair-natural-beauty-health-show/> (검색일: 2025.01.11.).
- Vistra. 2024. The EU AI Act: What multinational organisations should know. 출처: <https://www.vistra.com/insights/eu-ai-act-what-multinational-organisations-should-know> (검색일: 2025.01.11.).
- World Bank Group. 2019. Côte d'Ivoire receives \$150 million to improve water supply and sanitation services in 12 secondary cities. 출처: <https://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19/06/27/cote-divoire-receives-150-million-to-improve-water-supply-and-sanitation-services-in-12-secondary-cities> (검색일: 2025.01.11.).

● 투고일: 2025.01.16. ● 심사일: 2025.01.17. ● 게재확정일: 2025.02.13.

| Abstract |

The Brussels Effect and African Agriculture: Global Diffusion of EU Regulations and Its Challenges*

So Siwoo (HUFS)

Lee Hayann (HUFS)

Through the Brussels Effect, the European Union is establishing its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regulations as global standards, significantly impacting the African agricultural sector.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of EU sustainability regulations, particularly the EU Deforestation Regulation and child labor prohibition policies, on African agriculture while examining the responses of African nations to these regulatory chang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EU regulations have positively contributed to improv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quality in Africa while promoting sustainable trade structures. However, high compliance costs and complex administrative procedures have posed substantial burdens on small and medium-sized agricultural producers. Notably, Uganda's coffee industry and the cocoa sectors in Côte d'Ivoire and Ghana are implementing supply chain tracking systems and modifying production methods to meet EU regulatory standards. Nevertheless, some countries face potential trade barriers due to technical and financial limitations.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enhanced cooperation between the EU and Africa, along with expanded technical assistance and infrastructure investment, to address these challenges effectively.

<Key words> Brussels Effect, EU Regulations, African Agriculture, Sustainability, Trade Barrier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2022S1A5C2A02091292).